

1920~30年代 나의 齒科醫業 回顧記

李 鎬 坤 口 述

- ◇…… 本文은 大韓齒科醫學研究會誌 第2卷(1961年度)에 掲載된바 있는……◇
- ◇……內容을 轉載하는 것입니다. 故 李鎬坤先生님(1972年 12月5日 逝世)……◇
- ◇……의 口述을 整理 收錄한 것이나 當時의 齒科醫療界의 一端을 엿볼수……◇
- ◇……있어 會員 여러분께 參考에 供코져 여기에 다시 紹介하여 드립니다.……◇
- ◇……(編輯者 註)……◇

어느날 한 老人이 갖 시집은 며 누리를 데리고 왔다. 멀리서 新婦 治療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老人이 治療가 끝나자 《애야! 어서 가자! 젊은이들이야 어디 올텐가?》라고 며누리에게 말했다. 齒科醫가 新婦를 治療하는 光景이 그 老人에게는 怪奇하게 보였던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아주 까마득한 太古적 얘기 같지만 바로 이것이 1928年頃 鎭南浦에서 내가 開業했던 初期 일이다. 그뿐이던 도 좋다. 하루는 拔牙料 80錢을 받았더니 그 農夫患者는 그 後日 우리 齒科醫院 앞을 지나가면서 손짓을 하며 다른 行人들에게 하는 말이 《여봐요! 이 齒科에서는 이빨 하나 뽑는데 글썽 80錢이나 받네그러~!》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當時 患者는 蒲緞을 끝마치고서 하는 첫말은 《여보슈! 先生! 어디 갈비라도 뜯을 수 있겠소?》하는 것이었다. 또 路邊에서 相逢한 親知가 人事말에 하는 말은 前齒部位를 가르키면서

《이거 금니 하나 하는 데에는 얼맴니까?》하는게 일수이었다. 그때 齒石除去를 願하는 一部層은 있었는데 齒石이라니 스케링이니 하는 말은 勿論없었고 依例히 잇똥 긁으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看板만은 齒科醫院이라 했지만 民間에서는 그야말로 《이해박는 집》이라는 것이 一般의 認識이었다고 할수가 있었다. 後進諸氏들은 그저 웃을지 모르나 이나라의 齒科醫術은 이러한 悲慘한 歷史를 갖고서야 비로서 오늘날 만치라도 向上되었다는 事實은 決코 忘却되어서는 안되겠다. 歷史를 아는者만이 참으로 강한 者가 될수 있을 것이며 歷史를 아는 者에게만 發展이 있을수 있는 까닭이다.

내가 京城齒科醫學學校를 第2回로 卒業한 때는 1926年 26歲때 이었다. 그해 8月 15日 처음으로 開業한 곳은 鎭南浦 碑石里이었다. 이 곳은 平壤에서 140里 떨어진 곳이었는데 내가 에곳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于先 3年程度만을 平壤隣近地에서 修練하고 經驗을 얻은後에 平壤에서 開業하려는 心算에서 이었다. 當時 鎭南浦에는 日人齒科醫 2名, 日人 入齒業者 1名, 韓國人 齒科醫 1名, 韓國人 入齒業者 1名 計 5名이 이미 開業하고 있었다.

齒科患者는 1日平均 12名程度이었다. 報酬는 拔牙料 50錢 治療費 20錢, 金冠 3~4圓, 總義齒 15~30圓이었다. 齒科醫의 生活水準은 中流의 上程度이었다. 帝大卒業者의 俸給보다는 그래도 많은 收入이었다.

그때 나는 그누구나 그러하듯 많은 治療失敗를 했다. 그러나 失手를 했다고 해서 決코 意志를 굽하지는 않았다. 나의 失手는 故意가 아니었고 잘하자는 努力에서 한것이 그렇게 된 것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人格的인 價値있는 經驗이라고 自負했다.

3年程度만을 그곳에서 開業하였다던 初志가 어느덧 滿 9年이 經過

하게 되었다. 그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滿 9年 이 되려는 數日前에 突然 모든 것을 整理하고 平壤으로 갔다. 새로 자리잡은 곳은 平壤城 南門 南門里 66番地 이었다. 450圓을 資金으로 開業移轉은 한 것이다. 鎭南浦에서 滿 9年을 하고 清算하니 남게 된 돈이다. 醫院建物は 當時로서는 最新式 設備를 갖춘 것이었다. 2層 벽돌집으로 「다이쿠·마리」를 한 것이었고 治療室 15坪에 待合室과 技工室과 暗室을 15坪, 스탬裝置를 했고 便所는 水洗式에 齒科看板은 「네온·싸인」을 했었다. 齒科器械은 「유닐·체어」 3臺, 森田製品, 그리고 X-RAY 1臺, 島津製品, 電氣化네스 1臺는 松風製品, 「뉴기이씨」咬合器는 300圓程度인가 한던 것이었는데 그것도 購入했었다. 小器械은 大部分이 日本製品이었고 美國製品은 거의 쓰지 않았다.

齒科介輔者는 技工士 1名, 技工助手 1名, 看護員 3名이었다. 患者는 1日平均 20名程度이었고 月收入은 300圓 以上이었다. 이것은 1935年 前後의 일이다. 當時의 報酬料는 大略 治療費 30錢, 拔牙料 80錢~1圓, 金冠 5圓, 總義齒 15~30圓程度, X-RAY 1枚 50錢이었다.

나는 勤實하게 診療하면 잘 살수 있다는 信念으로 一貫했었다. 生活水準은 上流이었다. 主로 施設擴充에 썼다. 學術研磨한 開業醫로서는 大端히 어려운 것이었으나 京城齒科醫學會에는 每年 어김없이 出席했고, 陽曆正月初에는 꼭 1週日間 學生時節의 筆記帖을 모두 誠實히 썼었다. 그리고 陰曆正月初 2週日間

은 京城에 와서 世富蘭德病院 齒科에서 見學實習을 했었다. 購讀하던 學術誌는 5種이었다. 即 大日本齒科醫學會雜誌, 臨床齒科齒海, 高橋博士가 中心이던 矯正學雜誌, 京城齒科醫學會雜誌等이다.

總義齒은 반드시 石膏와 「모네딩」의 連合印像으로 調製했고 陶齒은 松風製이었다. 勿論 當時의 義齒狀은 蒸和 고무이었다. 局部義齒에 있어서는 「크라스프」는 既製品을 主로 使用했는데 現今과 같은 「마」와 「크라스프」를 함께 鑄造하는 方法은 몰랐었다.

根管充填은 「구로로파차」를 使用하다가서 1935年頃부터는 「오키시 파라」를 主로 使用했다.

金冠은 勿論 主로 모리슨氏金冠 調製法으로 했고, 鑄造金冠은 간혹 했었다. 架工齒은 언제나 鑄造했다. 前齒部의 金冠은 3/4金冠이 主이었고 開面金冠은 되도록 避했다. 「포스트크라운」亦是 많이했다. 患者는 멋이라고 해서 裝飾用으로 金冠을 하려는 者도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齒石除去는 當時에도 一部 官吏들이 했다. 1圓 50錢程度 받고서 勿論 파무스와 라바갑을 使用해서 했다. 回想하면 이득한 옛날 같은데 이러한 齒科報酬料는 적은 金額이 아니었다. 그때 쌀 한되에 4~5圓했었고 金 한돈 亦是 5圓程度, 高級料亭에서 5名程度가 妓生을 불러 놓고 잔잔 마음껏 마신다면 10圓만 있으면 되었으니 말이다. 普通은 3圓이던 잘 먹는 것이었고 5圓이던 큰상이었으니 當代의 齒科醫들은 그야말로 멋진 生活를 했었

다. 이때 平壤에는 同業人으로 韓國人에 한동장, 유창선 兩氏가 계셨고, 日本人 齒科醫師가 2名, 入齒業者가 約 20名程度 있었다.

編輯者 調査

李鎬坤氏는 本貫이 平昌이며 始祖 李潤張氏의 36代孫으로 文景公 派이다.

1901年 4月 17日(陰)에 李淳堯氏의 三男으로 태어났으며 伯兄 鎬基氏는 出卒하고 仲兄 鎬均氏의 膝下에는 六兄弟가 있다. 鎬坤氏는 二男三女를 두고 있는데 長男 元根(1922年生)氏 밑에는 이미 孫子 炳旭君이 있고 次男 德根(1938年生)氏는 1961年에 齒大를 卒業하였다.

李鎬坤氏의 經歷은 다음과 같다.

- 本籍 平安南道 平壤市眞香里 61番地
- 住所 서울特別市 乙支路4街 187番地
- 1918. 3. 平南江西公立普通學校 卒業
- 1922. 3. 平壤高等普通學校 卒業
- 1926. 3. 京城齒科醫學學校 卒業
- 1926. 鎭南浦碑石里에서 開業
- 1935. 平壤市南門里66番地에서 齒科開業
- 1951. 11. 釜山市大廳洞1가26番地
- 1953. 10. 에서 齒科開業
- 1952. 齒科醫師國家考試出題 委員
- 1953. 10.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4가187番地에서 江南齒科醫院開業
- 1954. 서울特別市齒科醫師會副 會長
- 1958. 서울特別市齒科醫師會 會長
- 1960. 서울特別市齒科醫師會 會長
- 1961.